

‘전남 1위 수출국’ 중국 경기침체...수출 전선 ‘빨간불’

중 채무불이행 위기 등 부동산시장 위축·소비침체 이어져 7월 수출 5억4천만 달러로 급감...수출 연중 20% 이상 ↓

중국의 경기침체가 광주·전남지역 수출 전선에 타격을 주면서 가뜰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와 투자, 수출 등 중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데다, 물가 상승률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중국 경제가 가라앉는 분위기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일뿐더러, 전남지역 수출국 1위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중국 경기 불안이 하반기 수출 상승세를 기대하던 지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도 나온다.

30일 지역경제계와 수출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가 7월 소매판매·산업생산·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하면서 경기침체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7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산업생산 증가율도 3.7%로 전월(4.45%)과 시장 전망치(4.5%)에 못 미쳤다. 무엇보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이슈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투자도 전년 대비 8.5% 하락했다.

특히 앞서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각각 0.3%, 4.4% 하락했다. 두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충격이 컸던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침체로 우리나라 역시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 덩달아 대중 수출 비중이 큰 전남지역 수출상황이 악화해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남지역 수출은 총 28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2% 급감했다. 이런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남의 최대 교역국인 대(對)중국 수출 감소가 거론된다. 전

남의 대중국 수출액 비율은 20%를 웃돌면서 베트남과 호주, 인도, 미국 등을 제치고 최대 교역국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전남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5억4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28억3000만 달러)의 19% 수준에 머무른 데다, 전년 동기(7억2000만 달러)에 비해서도 2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서 전달인 지난 6월 5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7억8000만 달러) 대비 29.2% 급감하는 등 중국으로의 수출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역협회 측은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회복이 지연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면서 전남의 중국 수출이 연중 20% 이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수출 상위 품목을 보면 화공품과 석유제품, 금속광, 철광 등이다. 올 1-6월 상반기 기준 화공품 수출은 19억8200만 달러, 석유제품은 9억4500만 달러, 금속광 1억7400만 달러 순이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 수요가 줄면서 철강과 동광 등 전남의 주요 품목 수출이 감소, 화공품과 석유제품 등 각종 중간재 수출 부진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역 수출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국 경기가 살아나 지역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였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이 많고, 전남 역시 비슷하다는 점에서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수출 현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중 경제 불안, 실적에 영향 받고 있다” 32%

대한상의, 수출기업 302개사 설문...중국내 소비재 판매 감소 등 꼽아

중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우리 기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발표한 ‘최근 중국 경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영향’ 자료에서 중국 경제가 직면하는 불안 요인으로 부동산시장 금융 불안, 내수 소비 위축, 산업 생산 및 수출 둔화를 꼽았다. 이 같은 중국 경제의 불안은 우리 기업에 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상의가 최근 대(對)중국 수출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중국 경기 상황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2.4%는 이미 매출 등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 기업의 절반인 50.3%는 중국 경기 불안

이 장기화 시 실적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중국 내 소비재 판매 감소(42.7%), 부품·소재 등 중간재 판매 감소(32.7%), 현지법인 실적 악화(16.6%) 등이 꼽혔다. 가장 우려되는 중국 경제 불안 요인은 중국 내 소비침체(33.7%), 산업 생산 부진(26.7%),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20%), 통관절차·무역장벽 강화(19.6%) 등으로 나타났다. 연초 목표 대비 현재까지 중국 시장에서의 경영 실적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이 목표보다 저조하거나(37.7%), 매우 저조하다고(14.7%) 답했다. 목표 수준을 달성한 기업은 45%였으며, 초과 달

성(2.3%) 또는 크게 초과 달성(0.3%)을 이뤘다는 기업은 2%대에 그쳤다. 향후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79.0%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원인으로는 산업생산 부진(54.5%)과 소비 둔화 추세(43.0%)를 많이 꼽았다. 중국 경제 불안에 대응하는 전략은 제3국으로 판로 다변화(29.7%)나 생산시설 제3국 이전(6.3%) 같은 탈중국 전략, 중국 시장에서 품목 다변화(18.7%)와 가격 경쟁력 강화(20.0%) 등 중국 집중 전략으로 나뉘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판로 다변화 등 다각화하는 전략이나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갖는 초격차 기술혁신 전략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산단공, 재난대응 상시훈련 실시

이상훈 이사장, 광주본부서 본사와 합동 토론회 주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30일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내 산단공 광주지역본부에서 재난 발생 시 사전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한 ‘2023년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산단공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위기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상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상훈 이사장은 광주본부를 방문해 직접 본사와 광주본부 합동 토론회를 주재했다. 산단공은 이번 훈련에서 지진에 따른 건축물

붕괴와 화재를 연계한 복합재난으로 선정해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초기 대응조치에서의 현장 조치 행동 설명서 실효성을 검증하고,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해 훈련의 품질을 높였다고 산단공 측은 설명했다. 이상훈 이사장은 “현장훈련 중심으로 직원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며 “산단공은 앞으로도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내실 있는 훈련을 시행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전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추석 명절 중기 특별자금 6천억 지원

업체당 50억 한도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30일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 신규자금 3000억원을 편성해 9월 한 달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을 위해 특별자금을 편성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무비,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3000억원의 만기연장 자금을 편성해 9월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 연장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50억원 이내로,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고 0.7%포인트 우대한다. 김두봉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이번 추석명절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지역민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자에 발 빠른 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자금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중기 경기전망 4개월만에 반등

중기중앙회, 207곳 조사...제조업 등 9월 경기전망 상승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9월 경기전망이 개선되면서 4개월 만에 반등했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 207개사를 대상으로 9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5.0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76.9) 대비 8.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전국 평균 83.7보다도 1.3포인트 높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보면 광주는 전월(79.0) 대비 2.5포인트 오른 81.5로 전망됐다. 전남은 전월(74.8) 대비 13.5포인트나 오른 88.3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86.0로 전월(76.7) 대비 9.3포인트 상승했고, 비제조업도 83.9로 전월(77.1) 대비 6.8포인트 올랐다. 광주·전남 전망지수는 4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

이다. 지역별로는 보면 광주는 전월(79.0) 대비 2.5포인트 오른 81.5로 전망됐다. 전남은 전월(74.8) 대비 13.5포인트나 오른 88.3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86.0로 전월(76.7) 대비 9.3포인트 상승했고, 비제조업도 83.9로 전월(77.1) 대비 6.8포인트 올랐다. 광주·전남 전망지수는 4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

다.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9월 신학기와 추석 연휴 등 내수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 전망을 보면 내수판매(76.5→83.8), 수출(83.3→100.0), 경상이익(76.7→81.6), 자금사정(77.3→79.5)과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95.8→95.2)까지 모든 경기 항목이 전월 대비 상승을 기록했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들의 지난달 주요 경영여론은 내수부진(55.1%)이 가장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아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건비 상승(53.1%), 업체 간 과당경쟁(32.9%), 원자재 가격상승(32.4%) 등 순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국세청 ‘세미래 체험관’ 9월 1일 재개관

노후시설 교체·콘텐츠 보강

코로나19 사태로 3년 넘게 문을 닫았던 광주지방국세청 ‘세미래 체험관’(사진)이 다시 문을 연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지난 2020년 2월 25일부터 휴관하고 있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지방국세청 화정동별관 1층 ‘세미래 체험관’을 오는 9월 1일 개관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개관을 결정한 뒤 지역 교육지원청 등에 체험관 재개관 소식을 공지해 알렸다. ‘세미래 체험관’은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세미래 교육센터를 새롭게 단장, 2010년 6월 문을 연 뒤 많은 지역민들이 애용한 공간이다.

개관 이후 휴관 전까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생을 비롯해 성인까지 누적 방문객은 총 4만 4872명으로, 호남지역의 유일한 세금 홍보·교육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광주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세미래 체험관 재개관 계획을 수립,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콘텐츠 보강했다. 양동구 청장은 “재개관 소식을 신속하고 폭넓게 안내하고 내실이 있는 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세금에 관한 역사와 의미를 재미있게 정확하게 홍보하겠다”며 “세미래 체험관, 청소년 세금교실 등을 통해 세금의 의미와 올바른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농협 강진군지부,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

농협 강진군지부는 지난 29일 강진읍 여성회관에서 (사)농가주부모임 강진군연합회, NH농촌진흥청장봉사단과 함께 ‘사랑의 밑반찬 나눔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봉사자들은 강진군 농산물로 직접 담근 열무김치

와 오이무침, 소불고기 등 정성이 담긴 밑반찬을 강진 관내 고령 농업인과 취약농가 100여명에게 전달했다. 배부자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우리가 만든 밑반찬으로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관내 농업인들에게

작은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봉사행사를 통해 회원님들의 역할과 나눔에 대한 의미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김덕삼 강진군 지부장은 “영농철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농주모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강진군 농주모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61.22(+9.06)
↑ 코스닥	923.81(+7.57)
↓ 금리(국고채 3년)	3.732(-0.008)
↑ 환율(USD)	1323.40(+1.50)